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로 이끌자

❹ 성공엑스포에서 배워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목표가 달성된 후 엑스포 성공 개최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역대 세계박람회 결과를 통해 본 여수엑스포 성공의 조건은 '흥행'과 '사후활용'으로 집약된다.

오키나와, 시설 철저한 활용 세계적 해양관광명소 부상

아시아에서 엑스포를 가장 잘 활용한 나라는 일본이다. 전문가들은 여수엑스포와 유사한 '해양'과 '바다'를 주제로 열린 세계박람회 가운데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지난 1975년의 일본 오키나와 대회를 꼽는다.

오키나와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4월 미군이 장악한 후 1972년 일본에 반환될 때까지 군사기지 역할을 하며 농업과 임업을 위주로 한 면적 2천255㎢의 조그만 섬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열대라는 독특한 기후조건과 독특한 전통적인 문화유적을 갖춘 오키나와는 '바다 - 그 바람직한 미래'를 주제로 1975년 개최한 엑스포 이후 관광산업이 급신장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작은 섬마을 환골탈태

오키나와는 엑스포 시설물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떠올랐으며 레저와 스포츠 시설까지 겸비해 연중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로 북적인다. 당시 오키나와 엑스포 관람객은 348만 여명. 숫자는 다른 대회에 비해 떨어졌지만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군사기지에서 세계의 관광명소로 면모를 일신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성공한 엑스포로 불린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지리학과)는 "한반도 남쪽의 중소도시인 여수는 일본 최남단의 섬 오키나와가 엑스포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이름을 얻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1970년 아시아의 첫 세계박람회인 오사카 엑스포로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오사카 엑스포 관람객은 무려 6천422만 명. 당시 관람객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85년 쓰쿠바 과학기술박람회로 첨단 과학·기술을 세계에 과시했다. 우리나라 대전이 1993년 엑스포를 통해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자리잡은 것과 유사한 사례다. 이때부터 쓰쿠바는 세계적인 첨단과학단지로 등장했다. 이어 일본은 2005년 도요타자동차의 거점인 아이치현에 엑스포를 열어 일본 경제에 힘을 보탰다. 10년 불황을 접고 일본 경제의 부활 신호탄을 쏘아올린 원동력이 바로 아이치 엑스포다.

에펠탑 엑스포로 명물돼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엑스포에 힘입어 세계 중심 도시로 우뚝 선 대표적인 곳은 프랑스 파리다. 1855년 세계 두 번째 엑스포를 포함해 여덟 차례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파리는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유치한 엑스포의 임시 구조물로 만든 '에펠탑'이 세계의 명물로 자리잡고 프랑스의 가장 큰 상징물이 됐다.

스페인은 1992년 세비야 엑스포를 유치해 쇠퇴해 가던 중세 도시를 지역 거점도시로 되살렸으며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 엑스포는 도심을 아예 옮겨놓은 대역사의 주역이 됐다. 포르투갈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전까지 리스본의 엑스포 부지는 도살장과 쓰레기 하치장 등으로 얼룩져있었으나 엑스포가 열린 뒤 이곳은 리스본의 가장 번화한 곳으로 모습이 바뀌었다. 역대 엑스포 개최 도시들은 세계박람회를 통해 '환골탈태'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

대선 D-16 주요 후보 광주·전남 공약

정동영 지역인재 채용 확대·우주 항공청 설립
이명박 영산강 운하·호남고속철 임기내 완공

대선 후보들의 책자형 공보물 등록 마감일인 2일 서울 종로선관위 직원들이 각 후보들의 홍보물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대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대선 주자 진영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각종 대선 공약들을 일제히 발표하고 있다.

특히, 대선이 중반전에 접어들자 각 대선 주자 진영에서는 광주·전남 민심의 향배가 대선 막판 수도권 표심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듭해왔던 각종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오는 4일 광주를 방문,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광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임기 내에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광주 2012년, 목포 2014년)도 약속했다. 또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국비 지원 규모를 현행 2조7천억원대에서 3조5천억원대로 확대하고 랜드마크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국립 현대미술관 및 국립 도서관 분관 건립을 공약으로 확정했다.

전남지역 공약으로는 서남권 개발 등 기존의 전남지역 숙원 사업 등을 포함,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산업 관련 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 서남해안 고속도로 조기 완공, 포항공대 규모의 대학 설립 등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광주·전남지역 공약으로 다양한 사업들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전남지역 공통 공약으로 영산강 운하와 호남고속철도의 임기 내 완공을 내세운 이 후보는 광주지역 공약으로 디자인센터의 확대 개편을 통해 세계문화상품단지 조성, 문화상품 생산 및 유통 시스템 구축, 세계문화상품디자인 전문학교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남지역 공약으로 이 후보는 광양·순천·여수 전남 동부권과 무안·목포·영암·해남 등 전남 서부권을 전북의 새만금 지구와 함께 '호남권 대삼각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수 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여수 반도를 친환경 국제해양레저와 신산업 특별지대로 개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광주-무안-나주-목포를 잇는 신경제대특구(NECA) 건설 구상이 우선 눈에 띈다. 또 광주에서 목포까지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호남고속철도, 도시외곽 순환도로, 서남권고속도로망을 확충하는 신광주메트로폴리탄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기술선도형 R&D센터 유치와 국립과학관 건립을 통해 광주를 과학기술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작은 지역단위 전원형 농촌도시를 건설하고 전남 전지역을 1시간 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속교통망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전격적인 대선 출마와 무소속으로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듯 이 후보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은 빈약한 상황이다. 이번 주 내에 호남을 방문, 보다 미래 지향적 공약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이 후보의 광주지역 공약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광주의 첨단과학단지의 R&D 특구 지정, 자동차 부품단지 클러스터 조성, 로봇·가전·광산업 지원 등이다.

전남지역 공약으로 이 후보는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F1 대회 개최, 서남권 개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문 후보는 광주권을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기조 아래 광주 R&D 특구를 지정하고 LED 시범도시 조성,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광주-전남 공동산업단지 조성, 문화중심도시 기반 정비, 첨단 노인 건강 타운 조성 등을 공약으로 확정했다.

또한, 전남지역 공약으로는 목포권을 환서해권의 중심축으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목포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 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 행복마을 구축 사업 지원, 낙후된 전남지역의 SOC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요 대선후보 광주·전남 공약

대통합신당 정동영	•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이상 확대 •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 우주항공청 설립 • 문화중심도시 국비 지원 학부 신설 • 포항공대 수준 대학 유치
한나라당 이명박	• 영산강 운하 •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 • 광주 세계문화상품단지·디자인 전문학교 • 여수반도 친환경 국제해양레저 및 신산업 특별지대 개발 • F1대회 유치
무소속 이회창	•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 F1대회 개최 • 광주 자동차부품단지 클러스터 조성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메카 육성
민주당 이인제	• 광주 과학기술 허브도시 육성 •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조성 지원 • 전남지역 신경제 대특구 건설 • 전원형 농촌도시 건설 • 고흥 항공우주산업 육성
창조한국당 문국현	• 광주권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 육성 • 광주 LED 시범도시 조성 • 광주·전남 공동산업단지 조성 • 목포권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 • 친환경 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

※ 누락된 후보는 아직 지역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임.

이인제, 영산강 뱃길 복원 국책사업 추진
이회창, 광주 첨단과학 R&D 특구 지정

신당 대선 150대 정책공약 발표

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지난 위기극복의 10년, 대전환의 10년을 기반으로 '영광과 도약의 10년'을 만들겠다"며 15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신당은 이날 '좋은 대통령과 함께 하는 신당의 150가지 약속'이라는 정책공약집을 내고 차별없는 성장을 통한 풍요로운 나라, 가족행복시대, 부패없는 투명사회, 위대한 한반도 시대 등 4대 국가비전에 대한 세부분야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신당은 정치·외교·안보분야 공약으로 ▲4년 연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비례대표 의원비율 확대 및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의원특권 대폭 축소 ▲부정비리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 사건에 대한 시민기소제 도입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및 남북연합 추진 ▲실질적 군비통제 실현 및 모병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선 ▲250만개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적극 육성 ▲6%대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여성고용률 60% 달성 ▲무역 1조 달러 및 8강 진입 ▲글로벌 톱10 산업 육성 ▲IPTV 서비스 조기도입 등을 약속했다. /연합뉴스